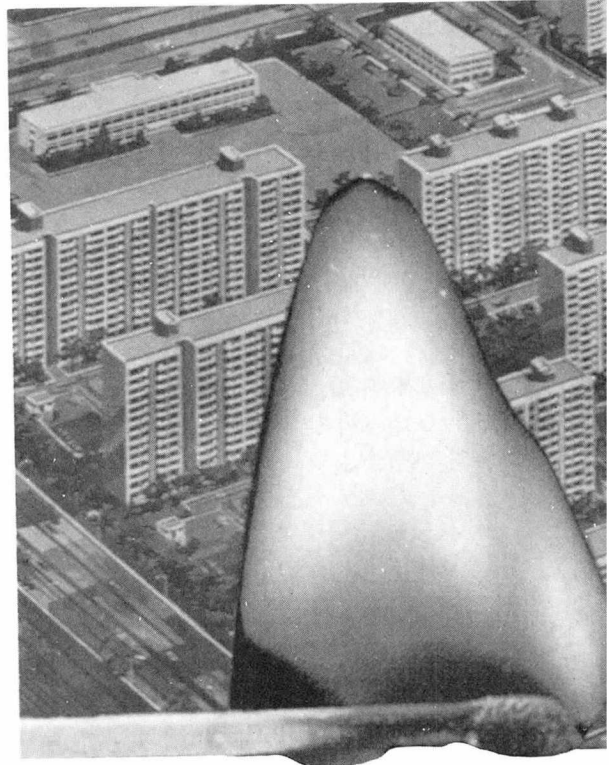


아파트 화재 어떻게 넘겼습니까?

취재: 변재용 <홍보부 차장>



현 대 생활에서 마스크의 위력이란 확실히 놀라운 것이다. 보통사람을 순식간에 유명한 사람으로 바꾸어놓는가 하면 그 반대로 유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를 못들게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그 동기가 어떻게 됐건 간에 일단 유명해진 사람은 유명세를 톡톡히 내야하는 어려움도 뒤따르게 된다.

또 어떻게 보면 전혀 화재거리가 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갑자기 스타로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 본인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주위에서 또는 처해 있는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여기에 소개되는 한 부인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유명한 스타는 아니다. 분명히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갑자기 유명해져버린 아주 평범한 두 아들의 어머니일 뿐이다.

서울 강남구 방배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찾은것은 6월 어느날 오후 3시경— 초인종을 눌러 쉽게 문을 열 수 있었다.

40대 후반의 부인이 직접 친절하게 문을 따주었으므로 마음이 더욱 푸근함을 어찌랴.

한국화재보험협회를 미주알고주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잘 정돈되고 깨끗한 거실은 평범한 중산층임을 쉽게 짐작케했다. 고층 아파트인데다 90×호라 베란다쪽 문을 열어젖히니까 바람이 아주 시원하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고 깨끗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고 의문이 생길 정도로 화재의 상처는 우선 겉으로 보기에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부인 : 분양평수가 5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생활을 하신지 오래 되셨습니까?

부인 : 지난 77년부터니까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 곳으로 이사온 것은 지난해 5월이구요.

- 어떻게 해서 화재가 났었지요.

부인 : 지난 2월 초순 밤 10시30분께 주방쪽에서 불이 났



는데 아마 전기기구의 사용량이 많았던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내외는 잠이 들어 있었고, 공부를 하고 있던 두 아이가 다행스럽게도 화재현장을 일찍 발견했지요.

이때 S대 영문과 3년에 재학중인 두째 아들이 막 들어섰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째 아들 점심상을 차리느라 바빴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는 두 내외말고도 S대 공대 4년생인 만이와 더불어 네 식구가 살고 있으며 부인 혼자서 모든 집안 일을 돌보고 있었다.

- 어떻게 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시게 되셨습니까?

부인: 아파트단지내 게시판에 공고되어 있는 안내문을 보코서입니다.

- 계약기간이 1년인 이 보험에 전에도 가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인: 그럼요. 아파트 생활을 시작한 이후엔 이사 다니느라 분주했던 한 해를 빼고는 매년 꼭 챙겨서 가입했었습니다. 제 성미가 워낙 꼼꼼해서요.(웃음).

- 1년 보험료가 얼마였습니까?

부인: 5천원 (사실은 5천60원) 정도인데요. 아마 보험료가 비싸서 화재보험에 가입 안하는 경우는 적은 것 같아요.

-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이재를 겪어보시니까 무척 착잡하시죠?

부인: 우선 창피스러워서 얼굴을 못들고 다니겠읍니다. 여러 달이 지난 지금도 부끄러워서 시장가는 것을 삼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파트 1층부터 꼭대기까지 오르내리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몇번씩 사죄를 했는데도 계속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 원래 재난이란 예측할 수 없는 불청객이며, 누구든지 조심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부인: 물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했길래 여러 사람 놀라게 만드느냐고 주위에서 자꾸만 질책하는 것같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갯더미 속에서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일 먼저 찾게 되더군요. (웃음) 정신적으로 무척 큰 도움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 보상금액이 혹시 만족스러울 정도였습니까?

부인: 사람 욕심은 원래 한이 없는 법 아닙니까? 수리·복구비 총액에 비하면 지급보험금이 조금 모자랐읍니다.

특히 아파트는 단독주택과는 달라서 내부시설과 가재도구 등이 더 문제가 되지요. 그러다보니 제 경우에는 지급보험금 1천2백34만여원이 전체 복구비의 절반을 약간 넘더군요. 그래도 월급장에게 이 보상금은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 가재도구 등 동산일체도 화보험회의 신체손해배상특약 부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재당시에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물론 지금은 동산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 계속 보험 얘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부인께서 보시기에 이웃 주민들의 화재보험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부인: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집 화재사건 이후에 보험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물어오는 사람도 있었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를 낼 형편이 못되어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납부방법이 귀찮거나 있어먹기 때문에 미가입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령 아파트관리비 납부 고지서에 보험료를 포함시켜 납부토록 하는 방법도 매우 좋을텐데요...



‘보험료 납부시 은행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납부제도를 원하고 있어요,’

-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지요.

부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화보협회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가입업무는 무난하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을러서 가입 시기를 놓치거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가입을 못하는 일 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편리한 납부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 그래서 화재보험협회에서는 각 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속 접촉하는 한편으로 빠르면 6 월하순, 늦어도 7 월초순부터는 서울 여의도지역에 한해 지로제도를 도입·실시할 예정입니다만....

부인: 은행창구(99번)를 이용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공신력도 있고 납부하기도 편리니까요. 지로제도가 실시되면 아마 모르긴 해도 가입률이 80% 이상으로 꺾충 뛰어오를 것입니다.

- 희망사항입니다만 최소한 99%는 되어야지요.... (웃

음) 그런데 아파트에는 전세입주자들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인: 그거야 원래의 집주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액수가 많으면 몰라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갖고 집 주인이 인색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부인: 정말 사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매스컴을 탄 형편이라 더 알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실 전국 7대 도시에 걸쳐 흩어져 있는 48만여 세대의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모두 부인과 같이 합리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하는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아파트 문을 나섰다.

본의 아니게 매스컴의 덕을 톡톡히 본 한 평범한 주부(49세)는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정액 봉급자의 아내로서 빈틈없이 집안일을 챙겨 나가는 이 가정이 무척 부럽다는 생각을 쉽게 지워버릴 수가 없음은 또 무엇 때문일까?

편리한 납부제도—

참 좋은 표현인 것 같다.

